

반중 매체 '빈과일보' 홍콩 최대 미디어 등극

시민들 주식 사주기 운동
모기업 시총 1위 기업 올라
사주 지미 라이 하루만에 석방
아들 운영 식당 시민 복새통



홍콩의 대표적인 반중국 매체인 '빈과일보'의 사주 지미 라이(가운데)가 12일(현지시간) 새벽 보석으로 풀려나 경찰서를 빠져 나오고 있다. 라이는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 10일 자택에서 전격 체포됐다. /연합뉴스

홍콩의 대표적인 반중국 매체인 '빈과일보'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이 뜻밖의 결과를 불러왔다.

빈과일보의 모기업 주가가 이틀 동안 1200% 폭등해 홍콩 최대 미디어 기업으로 등극하고, 체포됐던 사주의 아들이 운영하는 식당에는 시민들이 몰려들어 복새통을 이뤘다. 반중 매체 탄압이 되레 반중 진영을 결집하는 분위기이다.

1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빈과일보 사주 지미 라이가 체포된 후 이틀 동안 빈과일보의 모기업 넥스트 디지털 주가는 1200% 폭등해 전날 1.1홍콩달러로 마감했다. 이는 2008년 9월 이후 12년 만에 넥스트 디지털의 최고 주가이다.

이에 따라 넥스트 디지털의 시가총액은

29억 홍콩달러(4400억원)로 치솟았고, 넥스트 디지털은 홍콩 최대 방송사인 TVB를 제치고 시총 기준으로 홍콩 최대 미디어 기업으로 등극했다. 이에 넥스트 디지털 지분 71%를 보유한 지미 라이의 주식 평가액도 21억 홍콩달러(3200억원)로 10배 넘게 폭증했다.

지난해부터 넥스트 디지털이 극심한 경

영난을 겪은 것을 생각하면 이는 놀랄만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빈과일보가 지난해 홍콩 시위 때 중국 중앙정부의 강경 대응과 경찰 폭력 등을 강도 높게 비판한 후 이 신문에는 광고가 끊겼고, 넥스트 디지털의 2019~2020년 회계연도 순손실은 4억2000만 홍콩달러(640억원)에 달했다.

경영난에도 지난 이틀 동안 주가가 폭등한 것은 반중 매체를 탄압하는 중국 정부에 대한 홍콩 시민들의 강력한 반발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와 지난해 홍콩 시위의 온라인 본부 역할을 한 'LIHK' 등에는 넥스트 디지털 주식 매수로 빈과일보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는 홍콩 누리꾼의 요청이 잇따랐다. 넥스트 디지털의 전날 거래량은 41억 주에 달해 '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의 활발한 주식 매수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거래 단위로 수백만원 가량의 소규모 거래가 대부분이어서 기관이 아닌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사들였음을 보여준다.

지난 10일 체포됐다가 전날 밤 보석으로 석방된 빈과일보 사주 지미 라이에 대한 지지는 이 신문의 '완전' 행진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빈과일보는 전날 7만 부를 발간할 예정이었지만, 시민들의 열화와 같은 매수에 힘입어 그 8배에 달하는 55만 부를 발간해 다 팔아치웠다. 지미 라이와 함께 체포됐던 그의 아들이 운영하는 '카페 시즈스' 식당도 몰려든 시민들로 복새통을 이뤘다.

바이든, 러닝 메이트에 해리스 의원 낙점

美 첫 흑인여성 부통령 후보



작년 6월 27일 미국 민주당 대선경선 1차 TV토론의 주인공은 사실상 카밀라 해리스(55·사진) 상원의원이었다. 검사로 활약해온 이력을 심분 살리며 유력주자 조 바이든(77) 전 부통령을 거세게 밀어붙여 민주당 대선경선의 스타로 일약 발돋움한 것이다.

그는 과거 인종차별주의 성향 공화당 상원의원들과 협력했던 바이든 전 부통령의 이력을 겨냥, "당신은 그들과 버싱 반대에 협력했다. 당시 캘리포니아에 매일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가던 소녀가 있었다. 그 작은 소녀가 나"라며 울먹였다.

버싱(busing)은 흑백 학생이 섞이도록 학교 사이에 버스로 실어나르던 정책을 말한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제대로 반박하지 못했고 해리스 의원의 개인적 상처는 유권자들의 공감을 샀다.

해리스 의원은 지난해 12월 자금난과 내부 갈등으로 결국 대선주자의 꿈을 접었지만 11일(현지시간) 민주당 부통령 후보 낙점을 받으며 화려하게 다시 부상했다. 흑인여성으로서 처음 미국 주요 정당 후보로 이름을 올리게 된 것으로 11일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면 미국 역사상 첫 여성 부통령으로 기록된다.

해리스 의원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검찰총장)을 지낸 당시 바이든 전 부통령의 장남이자 델라웨어주 법무장관이었던 보 바이든과 매우 가깝게 지냈고 바이든

전 부통령도 알게 됐다. 보 바이든은 2015년 암으로 사망했고 바이든 전 부통령은 슬픔 속에 2016년 대선 출마를 포기했다.

해리스 의원은 민주당 대선경선 초반 승승장구했지만 자금난과 캠프 내부의 갈등을 이기지 못하고 작년 12월 레이스에서 하차했다. 그 이후로는 바이든 전 부통령을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이 사실상 민주당 대선주자로 자리매김한 이후 여성 부통령 후보를 내겠다고 공언하면서 그는 유력한 후보로 끊임없이 거명돼 왔다.

해리스 의원은 스탠퍼드 대학에서 가르치던 자메이카 출신 아버지와 UC버클리에서 암을 연구한 인도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캘리포니아주 오글랜드에서 자랐다. 이 때문에 해리스 의원은 미국 주요 정당에서 부통령 후보가 된 첫 흑인여성이자 아시아계라고 미 언론들은 칭하고 있다.

러시아 깜짝발표에 불붙은 백신개발 레이스

화이자·모더나 등 미 제약사

中 기업들 7월부터 3상시험

영국·유럽 회사들도 속도

상으로 한 임상시험에 돌입한 상태. 선두권에는 미국, 중국, 영국의 주요 제약사들이 있다.

미국 국립보건원(NIH) 산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와 공동으로 백신을 개발 중인 미 바이오기업 모더나, 독일 바이오엔테크와 손잡은 미 대형제약사 화이자는 지난날 27일 동시에 각각 3만명 규모의 3상 임상시험에 착수했다.

신약 시판 전 최종 검증 단계로 여겨지는 3상 시험을 통과하면 보건당국의 승인을 거쳐 백신을 곧 시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말에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 시노백 생물유한공사와 함께 지난 달 21일 코로나19 백신 3상 시험에 들어간 브라질 삼파울루주 부탄탕연구소의 지마스 코바스 소장은 지난 6일 하원에 출석해 "10월 중에 코로나19 백신을 보건당국에 정식 등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영국 기업들도 백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영국 옥스퍼드대와 함께 백신 개발에 나선 아스트라제네카는 초기 임상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조만간 3상 시험에 착수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사태의 '게임체인저'가 될 백신 개발 레이스가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러시아가 11일(현지시간)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백신을 공식 등록했다는 깜짝 발표를 내놓은 것이 전세계 백신 개발 현황에 대한 관심을 한층 더 높인 모양새다.

지난 1957년 옛 소련이 인류 최초로 소아 유행 인공위생의 이름을 따 '스푸트니크 V'로 명명된 러시아의 첫 백신은 8월 말이나 9월 초에 1순위의 의료진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판될 예정이라고 타스 통신이 전했다. 3상 임상시험을 건너뛰면 러시아보다 앞선 단계에 있는 다른 나라들의 백신도 적지 않다.

하지만 이번엔 봉쇄 조치를 전격적으로 도입한 것은 '슈퍼 전파자'가 발생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 국가봉쇄령은 내리지 않았다. 항공 운항 제한, 외국인 입국 금지, 해외에서 돌아온 이들에 대한 3주간의 격리 조치 등을 통해 바이러스 확산을 막아왔다.

부탄은 12일까지 누적 확진자 수 113명(월드오미터 기준)에 사망자는 한 명도 없었던 정도로 비교적 방역을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번엔 봉쇄 조치를 전격적으로 도입한 것은 '슈퍼 전파자'가 발생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모리셔스 해안에 기름 유출하는 日 화물선 인도양의 섬나라 모리셔스 해안에 좌초한 일본 화물선 'MV 와카시호'에서 11일(현지시간) 흑갈색 기름이 유출되고 있다. 지난 7월 25일 밤 좌초한 MV 와카시호에서 1000t 이상의 기름이 새어 나와 모리셔스 해안의 산호초와 환초호 보호지구 등을 오염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부탄, 슈퍼전파자 발생 우려에 첫 전국봉쇄

'행복의 나라'로 알려진 히말라야 소국 부탄이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국가봉쇄령을 내렸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이 11일 보도했다.

부탄 정부는 전날 성명을 통해 바이러스 전파의 고리를 즉시 끊기 위해 전례 없는 봉쇄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정부는 "모든 이들은 질병으로부터 자

신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집에 머물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봉쇄 기간에는 학교, 상업 시설 등이 모두 문을 닫고 주민 외출과 차량 운행 등도 엄격하게 통제된다. 다만 앞으로 며칠 동안은 필수품 구매를 위한 외출은 허용된다.

인구 75만명의 부탄은 지난 3월 초 첫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스페인독감·코로나19

모두 이겨낸

107세 美할머니 '화제'

코로나19에서 회복한 미국의 107세 할머니가 자신의 장수 비결을 '운동'이라고 소개해 눈길을 끈다.

12일 미국 폭스뉴스와 지역 매체인 에스베리 파크 프레스 등에 따르면 뉴저지의 브라이언트 요양원에 거주하는 아나 톨 프라이어(107) 할머니는 지난 5월 코로나19에 감염된 후 2개월간의 투병 끝에 지난달 회복됐다.

108세 생일을 20여일 남겨둔 프라이어 할머니는 6살 때인 1918년에는 스페인독감에 걸렸다 회복되기도 했다. 프라이어 할머니는 장수 비결로 "계속 움직이라"고 말한다.

할머니는 현재 수영과 바느질을 포함한 일상생활을 다시 시작했는데 "기본 좋으며, 살아있게 해준다는 느낌이 감사하다"고 말했다.

"살아있도록 노력하라"는 할머니는 "좋은 기분을 좋게 해준다. 건강을 유지하고 싶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